

제9강 오직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마 23:3,4)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이며 그 다음은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행하라고 하는 부모가 아닐까 합니다. 부모 자신은 배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잘 살으라고 하는 사람처럼 위선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진정한 통찰이 없으면 우리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발버둥이 없으면 우리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 역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전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교육은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지는 심정으로 다음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계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교육하겠습니다.
4.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2. 사람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인간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흐려지면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마음의 속도도 점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막히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때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계 2:4,5)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부모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우리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갖 물질적 자원들과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보다 결

코 앞설 수 없으며 앞서서도 안 됩니다.

(마 10:37~39)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분이 우리에게 중대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자 지침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그것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막힐 때, 주님의 십자가로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자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거듭남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이 자녀의 육적 탄생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자녀들의 영적 탄생의 주역도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래 말씀을 보십시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not of blood), 부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녀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the will of the flesh), 거듭나야겠다는 자녀들의 의지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the will of man), 거듭나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다른 사람(특히 부모)의 의지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but of God), 거듭나야 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마음도 이해해주고, 자녀 교육에 대한 큰 그림도 그리고, 문제의 소유자도 잘 가리고, 논리적 결과도 책임지고, 말씀으로 권면도 잘 했는데 만약 자녀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사해주셨다는 영원한 속죄를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항상 가슴조리면서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육신적인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고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역은 거의 대부분 악의 세력권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맛보게 될 세상은 참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과 유혹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여져 자녀들의 마음을 노략질 하고 있습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 사상들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TV나 게임, 세상 문화에 녹아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흥미하게 흔들여 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부도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 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지적인 작용이 왕성해질수록 그 수준에 맞는 말씀들을 자주 듣게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의 말씀 가르침은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가정 내 어머니 역할까지 참으로 힘드시겠지만 이제 말씀의 영역까지 어머니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현 시대, 가정에서 아버지가 실종되는 아픔이 크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도집회 말씀 선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의 사실, 하나님께의 살아계심, 죄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는 집회(전도, 수요, 주일, 생활) 조, 구역 모임 등 각종 모임의 말씀을 소화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중심의 가정 문화가 뿌리 내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고후 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4. 여전히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더운 여름이 아무리 무덥다 해도 결코 겨울은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늦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로 갑니다. 자연 만큼 인간사에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즉 가르침과 배움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눅 13:32,33)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극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말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인용해서 가르치려면 당신께서 먼저 성경 말씀으로 씨름하셔야 합니다. 압박강가의 야곱처럼 끝까지 씨름하십시오.

“주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나 제게 말씀이 없습니다. 제게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성경 본문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이 씨름을 계속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 119: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삶에서 말씀만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일지라도 말씀 앞에서 계시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의 길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 힘이 들고 어려울 땐 먼저 ‘내게 말씀이 있는 가?’를 점검하십시오.

내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2) 마음의 속도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발걸음과 말을 천천히 하시고 목소리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만의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5. 우린 이번 어머니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 1~2가지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번 어머니 교실에서 배운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p>하나님 경외 교육과 부모 공경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잠 1:7) -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삶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2.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삶으로 해야 합니다. 3. 부모인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먼저 되자. 4.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실제 지침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5.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p>참사랑과 바른 훈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삿 13: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잘못된 사랑과 참된 사랑법 2. 바른 훈계법 3. 훈계시 주의할 점 4. 책망과 체벌 5. 가정 내 규칙 세우기
3	<p>말씀을 자녀에게 심자(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 12: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2. 당신은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 자신이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 3.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 문제 상황에 따른 말씀 교육

4	말씀을 자녀에게 십자(2) -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6,7)	1.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2. 자녀는 말씀이 필요한 죄인! 3. 성경적 책망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4. 성경으로 바르게 하기 5. 훈련에 의한 의로 교육하기
5	말씀을 자녀에게 십자(3) -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	1.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 2. 성경공부를 위한 바람직한 질문법들 3. 말씀으로 가르치기의 끝은 어디일까? 4. 관찰-해석-적용으로 가르치기
6	자녀와의 아름다운 대화 -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약 1:19)	1. 바람직 하지 못한 대화법 2. 적극적 경청과 공감 3. 정중한 요청 4. 나-전달법 익히기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한 책임 훈련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1. 성경은 선택의 책이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2.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책임 3.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4. 문제의 소유자에 따른 결과 책임지기
8	자녀에 대한 큰 그림과 떠나보내기 -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전 7:7)	1. 나를 돌아보기 2. 나를 이해하기 3. 앞으로의 나를 그려보기 4. 사명 선언문 만들기 4. 자녀 떠나보내기 5. 자기 떠나보내기(임종 체험)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 배움은 실천으로 입증됩니다. 실천은 많은 것을 붙잡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 실천 가능한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자신의 가정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교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묻고 답하는 피드백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6. 3차에 걸쳐 Feedback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다루다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몇 주 동안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실습을 한 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가 않습니다. 향후 더욱 유익한 어머니 교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와 같이 **Feedback**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니 교실 'Feedback' 일정>			
1차 모임:	월	일	요일, 10:30, 장소: _____
2차 모임:	월	일	요일, 10:30, 장소: _____
3차 모임:	월	일	요일, 10:30, 장소: _____

7. 다시 마음 공부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고 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죽음을 앞에 둔 어머니가 자기 자

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떠난다면,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 자녀 앞에 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며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행 20: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8. 그리고 마지막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리스도인 학부모로서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차원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좋은 학부모가 되는 것과 우리 교회 여러 학부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2: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함께 자녀 교육의 길을 가는 동료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번 어머니 교실을 함께한 동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학부모님들께 성경 중심의 어머니교실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주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석하시라고 전해주시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더 크게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본이 되는 것은 인생의 주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에서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이다.**